

— 무금량 삼정토 —

玢金梁參淨土

신선과 귀신, 그리고 도행자들의 땅.
무금량삼정토.

1. 들어가며

- 이 문서는 마도서대전 **TRPG** 마기카로기아의 팬메이드 미니 서플리먼트 〈무금량삼정토〉에 대해 기술하고 있습니다.
- 〈무금량삼정토〉는 마도서대전 **TRPG** 마기카로기아의 기본 룰북과 이경 설명 부분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 이 서플리먼트는 비공식 서플리먼트이며, 마기카로기아의 세계관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 〈무금량삼정토〉를 이용한 시나리오 창작 및 배포, 캐릭터 메이킹, 내용 침삭, 변형, 자의적 해석, 세계관 추가 등 모두 자유롭게 부탁드립니다. 기틀만 남기고 전부 원하시는대로 변형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모쪼록 즐겁게 가지고 놀아주세요.
- 침삭수정본의 공개배포, 이 문서에 대한 자작발언, 문서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 전반에 대한 비하 발언은 삼가해주세요.
- 문의, 또는 건의는 배포계정 (@lavenderdish) DM으로 접수합니다.

2. 개괄

● 세계 배경

중국 대륙의 넓은 범위에 걸쳐 존재하는 이경 〈무금량삼정토 毳金梁參淨土〉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줄여서 간단하게 무금량이라고 부릅니다. 이 이경에서는 시간이 열 배 빠르게 흐릅니다. 인계의 1년이 무금량의 10년과도 같습니다.

무금량삼정토는 옥과 금으로 만들어진 들보가 떠받치고 있는 세 개의 정토라는 뜻입니다. 정토(淨土)는 말 그대로 청정한 땅으로, 일체의 번뇌와 더러움을 벗어난 자들이 오르는 선경. 오탁(五濁)과 지옥·아귀·축생의 삼악도가 없는 곳입니다. 그 반대 개념으로는 예토(穢土)가 있습니다. 예토란 다른 말로 사바(娑婆). 평범한 세속인들이 살고 있는 하계, 인세의 땅입니다.

그러나 삼정토라는 이름과 다르게 어쩌서인지 이 이경은 두 개의 정토와 하나의 예토, 그리고 무간. 이처럼 삼법계로 이루어져있습니다. 그것은 100년 전에 일어난 대붕괴 때문입니다.

- 대붕괴

대붕괴란 100년전. 그러니까 대법전의 시간 개념으로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10년 전에 대법전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대파괴입니다.

지금까지 무금량이라는 이경은 자체의 세계 바깥에 있는 그 무엇과도 접촉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파괴의 여파는 무금량에까지 미쳤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파괴되면서 그 영향으로 두 세계의 경계에 틈이 생기고 만 것입니다.

대파괴로 인해 두 세계 사이를 왕래할 수 있는 ‘틈’이 생기면서 경계의 틈으로 이반한 마법사, 즉 서적경들과 탈출한 금서들이 대거 유입되었고, 무금량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본디 무금량은 평범한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인간계와 신선들이 살고 있는 선계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이 혼란기에 세 개의 정토를 떠받치고 있던 세 들보 중 하나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본디 정토였던 땅은 붕락하면서 오탁악(五濁惡)에 물들어 예토와 무간이 되어버렸고, 선계(정토), 인간계(예토), 하계(무간). 세 개의 법계(三法界)가 생겨났습니다. 이것을 대붕괴라고 부릅니다.

대붕괴는 무금량의 모든 존재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주었습니다. 무너진 정토를 다스리던 신은 악신, 혹은 귀(鬼)가 되었고 정토에 살고 있던 생물들은 아귀가 되었으며 사람들은 수라나 축생이 되었습니다.

- 대법전과의 교류

본디 대법전과의 교류가 일절 없었던 무금량이지만,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자 대법전의 문호에서는 사절을 파견하였습니다. 대법전의 사절은 무금량에 일어난 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무금량을 어지럽히고 있는 서적경과 금서 회수를 위해 대법전 측에서 마법사를 파견하는 것을 허가해달라는 요청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무금량은 더 이상 외부 세계의 존재가 무금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며 대법전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대신 무금량에서 내건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서 회수와 서적경의 추포는 무금량에 일임할 것.
- 대신 10년(대법전의 시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공식 사절이 방문하여 그동안 회수한 금서와 사로잡은 서적경을 거두어가는 것은 허가함.
- 이외의 방문은 일절 허용하지 않음.

대법전은 무금량에서 내건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대법전과 무금량의 제한적인 교류가 시작되었습니다.

● 금서 회수

대법전의 요청이 아니더라도, 선도자(仙道者)로서 도탄에 빠진 세계를 구하는 것은 온당히 걸어야 할 정도(正道)입니다. 따라서 각지의 도행자들, 그리고 남아있는 두 정토의 신선들은 삼법계(三法界)를 구하기 위해 분연히 일어나는 것을 주저치 않았습니다.

따라서 〈무금량삼정토〉 서플리먼트를 이용한 보통의 시나리오에서는 PC들이 무금량의 신선, 혹은 도행자 등이 되어 무금량의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앙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게 될 것입니다.

3. 세부

이 단락에서는 2장에서 서술하지 않은 세계관의 세부를 서술합니다. 다만 이 단락에 기술된 항목과 요소들은 얼마든지 취사선택 할 수 있습니다. 항목을 변형, 삭제, 첨가하여 사용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세계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다고 여겨주세요.

- 삼정토

본디 무금량에는 세 개의 정토가 있었다고 위에서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각각의 정토는 무금량의 최고신인 삼청(三清)이 총괄하여 다스리고 있으며 하나의 정토 안에 수천개의 강산이 있고 수백개의 신궁과 신전 등이 있습니다.

정토는 말하자면 선경입니다. 예토에서 수행을 통해 일정한 경지에 오른 자들이 세속의 욕신과 욕망을 벗어던지고 우화등선하면 정토에 올라 신선이 될 수 있습니다.

- 화석경 華汐景

삼청 중 하나인 화청이 관장하고 있는 정토입니다. 예토의 동쪽과 북쪽을 화석경에서 보살핍니다.

- 여영령 餘榮鈴

삼청 중 하나인 영청이 관장하고 있는 정토입니다. 예토의 남쪽과 서쪽을 여영령에서 보살핍니다.

- 관위산 冠位山

삼청 중 하나인 위청이 관장했던 정토입니다. 지금은 대부분이 무너져 예토와 무간으로 변해버렸지만 백 년 동안 많은 신선들과 도행자들이 분골쇄신하여 노력한 끝에 간신히 예토의 지반을 다졌습시다. 본디 관위산을 다스렸던 위청은 대붕괴 당시 실종되어 지금까지도 행적이 묘연합니다. 속설에는 그가 가장 깊은 무간의 골짜기, 무저갱에 군림하는 악신이 되었다는 소문마저 돌고 있습니다.

- 예토

인간세상입니다. 대붕괴가 있기 전부터도 존재했고, 수많은 나라와 도시들이 생겨났다가 몰락하기를 반복하였습니다. 예토에 살고 있는 것은 평범한 인간들이지만, 개종 경지에 다다른 자들은 정토, 즉 선경으로 등선합니다.

- 무간

도탄에 빠진 하계, 수라와 축생, 아귀와 귀신들이 득실거리는 무간입니다. 본디 무금량에 무간이라는 법계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100년 전의 대붕괴 당시 생겨난 이후로 선계의 가장 큰 근심거리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 곳에서 생겨난 악과 횡액, 사악한 존재들은 예토로 숨어들어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끔찍한 재앙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개중에는 금서와 서적경들이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재액도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해결하는 것이 PC들의 주요한 임무가 될 것입니다.

4. 신선과 수사

무금량삼정토 서플리먼트를 사용해서 플레이어는 신선, 혹은 수사(경력 도행자에 해당) 신분의 PC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기카로기아 기본룰북을 참조했을때 ‘마법사’에 대응되는 대분류의 개념입니다.

이 장에서는 PC 제작과 관련하여 무금량삼정토 서플리먼트가 기존의 요소들을 어떻게 변형하여 적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변형된 요소들을 이용해 어떻게 PC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서술합니다.

1. 계제 → 신격

무금량에서는 대법전의 계제에 해당하는 개념인 ‘신격’을 사용합니다.

신격 표		
대법전	무금량	설명
1계제	입도 入道	길에 들어서다.
2계제	견문 見聞	보고 들어 넓히다.
3계제	사접 思蝶	나비를 생각하다.
4계제	지화 知花	꽃이 피는 이치를 알다.
5계제	명협 明峽	어두운 협곡을 밝히다.
6계제	분월 焚月	달을 태우다.
7계제	전청 全淸	오로지 맑다.

신격은 신선으로서 어느 정도의 경지에 올랐는지를 나타내는 항목입니다.

정식 등선한 신선들은 곧바로 3계제에 해당되는 사접思蝶부터 시작합니다.

1,2계제에 해당되는 입도와 견문에는 인간계에서 수행하는 수사, 선경의 신들을 모시는 사제, 익선전(학원)에서 수학하는 동아(童牙)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식으로 등선하여 신선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 예비 단계에 있는 이들을 가리킵니다.

현존하는 전청(7계제)은 악신으로 전락한 위청을 제외하면 각 정토의 극존(極尊)인 화청과 영청 뿐입니다.

2. 경력 → 내력

무금량에서는 대법전의 경력에 대응하는 내력을 사용합니다.

위계는 신장, 문선, 비사문이 1위계, 도행자, 나타, 영보가 2위계인것으로 간주합니다.

내력 표	
대법전	무금량
서경	신장
사서	문선
서공	비사문
방문자	도행자
이단자	나타
외전	영보

- 신장 神將

신조: 삼법계의 혼란을 막는다.

신장이란 신의 군대라는 뜻으로, 명실상부한 최전선의 인력입니다. 대개 무武, 병兵, 전戰을 가호하는 천신들이 소속되어있으며 개중 상당수가 인계에서 무공덕을 쌓아 등선한 무신(武神)입니다.

신장들은 주로 오락막에 물들기 쉬운 정도의 끝자락에 주둔하거나 예토의 한 지역을 맡아 관장하는 등 인계와 선계의 안온평화를 위해 각고면려합니다. 일부 신장들은 선경에 머무는 대신 무간을 평정하여 예토화 하는 것에 열중하고 있어, 선경에만 머무는 신선들은 몇몇 신장들의 얼굴조차 모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간의 불길은 아직 거세고 발생하는 재액은 나날이 그 세와 수를 불리고 있습니다. 하계 평정은 아직도 먼 이야기입니다.

- 문선 文仙

신조: 삼법계의 이치를 밝힌다.

문선들은 학學, 문文, 서書, 율律, 법法을 관장하고 가호합니다. 신장들이 생전 뛰어난 무장들이었다면, 문선들 중에는 학과 법의 이치를 깨달아 등선한 이들이 많습니다. 결사의 청백리, 한 나라의 재상, 뛰어난 문필가, 홍안의 국사무쌍, 무명의 지략가 등 여러가지 이야기가 문선의 미담으로 전해져오고 있습니다.

무금량의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액의 종류를 파악하는 일, 재액을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비책을 제시하는 일, 재액이 일어난 지역의 후수습 방안을 모색하는 일 모두 문선이 하는 일입니다.

- 비사문 毘沙門

신조: 세간을 어지럽히는 사보(邪寶)를 거두어들인다.

비사문은 무금량 특유의 내력입니다. 주로 뛰어난 장인, 기술공, 이용후생의 실학에 능한 학자들, 세기의 예인 등이 등선하여 비사문이 됩니다.

이들의 등선은 대개 영보, 혹은 사보와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보적인 경지에 이른 장인이나 예인이 빚어낸 기물에 영험한 기운이 깃들어 영보(靈寶)가 되거나, 혹은 사악하고 요사스런 기운이 깃들어 사보(邪寶)가 되는 경우입니다. 때로는 명창의 곡조, 화백의 서화 자체가 영보, 사보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영보나 사보를 빚어낸 명인들은 평범한 인간의 경지를 초월하여 머지않아 선경에 오르게 됩니다.

신장들이 쓰는 병장기, 문선들이나 오사가 애용하는 법기(法器) 역시 이들이 빚어낸 것이 대다수입니다. 이들은 인세를 떠돌며 세간을 어지럽히는 사보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것의 사악한 기운을 파훼하거나 회수하는 것을 신조로 삼습니다. 인간 시절의 자신이 만들어낸 사보를 스스로의 손으로 파괴하는 것을 숙원으로 여기고 있는 비사문들 역시 적지 않습니다.

- 도행자 道行者

신조: 혼란에 말려든 민간인들을 돕는다.

도행자들은 아직 등선하여 신선이 되지 못한 자들입니다. 보통의 수사들은 보통 인세에서 도를 닦고 선을 행하며 선경에 오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인간’으로, 유한한 수명을 가지며 신체에도 인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수사들 중 선경의 신선에게 지목을 받았거나, 신선을 직접적으로 모시는 신관의 신분에 있거나, 수련의 경지가 깊은 자들은 세간의 재액을 퇴치하거나 사람들을 도울 능력이 있습니다. 선경에서는 이런 이들을 도행자라고 부르며 재액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때때로 도움을 청하기도 합니다.

- 나타 羅他

신조: 선과 악을 가려낸다.

나타란 이를테면 영물입니다. 용, 기린, 천마 등의 영수들, 혹은 특정한 종류의 기가 모여 만들어진 귀鬼, 영靈, 정精까지도 포함합니다. 이런 영물들 중에는 때로 인세에 해를 끼치는 악수들도 있지만, 반대로 토지를 수호하고 사람들을 지키는 이로운 것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나타라고 부릅니다. 나타들은 일반적인 요괴, 귀신들과 다르게 제대로 된 자의식과 지성이 있으며 선과 악을 가려내는 신묘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신선들 중에는 나타와 지우, 동맹, 협력자 관계를 맺으며 교분을 나누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선경에서는 때로 이들의 신묘한 힘을 빌려 인간의 재액을 해결하거나 사건의 시비를 가리기도 합니다.

- 영보 靈寶

신조: 누군가의 소원을 들어준다.

영보란 누군가에 의해 빚어지거나 누군가의 소원, 토지의 정기, 지역의 기운 등을 흡수하여 자연적으로 생겨난 영묘한 기물을 말합니다. 이렇게 생겨난 기물은 자의식과 지능을 가질 뿐만 아니라 독특한 영력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영보의 영력은 본질을 꿰뚫어보는 힘이 있다고 전해지며, 때로는 신선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재액들을 영보가 해결해내기도 합니다. 영보는 누군가의 소원으로 존재를 유지합니다. 그들은 소원을 들어주면 들어줄 수록 강력해집니다. 그러나 때로 복수심이나 살심에 사로잡힌 이들의 소원을 이루어준 영보가 사기에 침식되어 사보가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선경에서는 희귀한 영보들의 관리에 요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3. 기관 → 소속

무금량에서는 대법전의 기관에 대응하는 소속을 사용합니다.

기본적으로 기관의 특기사항, 기관 소속 조건은 기존의 것을 그대로 채용하지만 변경점이 있다면 따로 기술합니다.

소속 표	
대법전	무금량
원탁	천존궁
학원	익선전
아방궁	등래각
엽귀	멸악정
천애	월궁
문호	팽효전

- 천존궁 天尊宮

신조: 하늘과 땅의 평화를 지킨다.

개요

천존궁은 선경의 상위 천신들이 소속되어있는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재액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 수합과 인선, 그리고 논공행상이 천존궁 주관으로 이루어집니다.

무금량에는 총 두 개의 천존궁이 있습니다. 화청이 수장으로 있는 화석경의 천존화궁, 그리고 영청이 수장으로 있는 여영령의 천존영궁이 그것입니다.

정토가 본디 세 개였듯이 관위산에도 수장으로 위청을 둔 천존위궁이 있었습디만, 관위산이 무너져 무간이 된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변경점

- 기관마법: 동일
- 원탁 특권 → 천존예우: 천존궁의 소속자는 분과회 중에서 서열이 가장 높은 것으로 간주한다.
- 운명 조작: 동일
- 마도서 저항 → 내용 동일, 명칭 ‘사도저항’으로 변경.
- 엘리트 코스: 내용 동일, 명칭 ‘존귀천신’으로 변경.
- 조건: 경력이 이단자 또는 외전이 아니다. → 경력이 도행자가 아니다. (이외 동일)

- 익선전 翼仙殿

신조: 영혼을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

개요

정토에는 보통 등선하여 신선이 된 이들이 오르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목숨을 잃었으나 제대로 장례를 치르지 못해 그 혼이 구천을 떠돌게 된 경우입니다. 익선전은 이렇게 떠도는 어린 혼들을 거두어 기르고 가르쳐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이력으로 익선전에서 생활하는 어린 혼들을 동아(童牙)라고 합니다.

대법전과 달리 익선전에서 배운 동아들이 모두 사접(3계제)의 천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다수의 동아들은 인세에 윤회하거나 모시던 스승의 하위신 격인 부신(附神)이 되는 것을 선택합니다.

변경점

- 기관 마법: 동일
- 마음에 걸리는 학생: 동일
- 아덴의 숲: 내용 동일, 명칭 ‘통현通賢’으로 변경
- 반짝이는 만남: 동일
- 조건: 1계제, 2계제의 PC들은 동아의 자격으로 소속될 수 있다.
3계제 이상이라면 사존의 자격으로 소속될 수 있다.
경력이 도행자인 3계제 이상의 PC는 사존으로 소속된다. (이외 동일)

- 월궁 月宮

신조: 하늘을 읽어 운명의 흐름을 파악한다.

개요

월궁에서는 하늘의 징조와 별의 길, 세상을 비추는 달과 태양의 맑고 밝은 빛을 관장합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의 인과율을 가능하고 세계의 섭리에 비틀림이 없도록 살피는 것 역시 월궁의 직무 중 하나입니다.

월궁에 소속된 천신들은 대개 인계에 있을 적에도 환시, 예지시, 점술 등에 능통했던 이들입니다. 길거리에서 파자점, 팔괘점 따위를 봐주고 푼돈을 받던 떠돌이 점술가로부터

한 나라의 천문관을 담당했던 고위급 예언가까지 갖은 이력의 인물들이 등선하여 월궁에 소속됩니다. 이들은 보통 특정한 별의 가호를 받고 태어나 명과 팔자에 별길이 새겨져있다고 합니다.

변경점

- 기관 마법: 동일
- 예언: 동일
- 꿈의 계시: 동일
- 잠자는 공주의 조언: 내용 동일, 명칭 ‘월궁항아(月宮姮娥)’로 변경.
- 조건: 동일

- 멸악정 滅惡亭

신조: 악을 멸한다.

개요

멸악정은 100년 전 대붕괴 이후 새로 생겨난 소속입니다. 대붕괴 이전에는 무간이라는 개념이 없었고 선계에 대항하는 악귀, 요괴 등의 세력이 그리 강력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무간의 귀기에 물들어 악신화하는 천신들 역시 드물었지요. 그러나 대붕괴 이후 세상의 균형과 섭리가 흔들리면서 오탁악에 물들어 악신, 혹은 귀鬼가 되어버리는 신관들이 늘어나자 천존궁에서는 멸악정을 지어 악을 방비하고 귀를 물리치고자 하였습니다.

세를 불린 무간은 선계에 자신들의 꼬나풀이나 첩자를 심어놓기도 하였습니다. 이들을 색출하고 박멸하는 것 역시 멸악정의 책무입니다. 일부 멸악정 소속 천신들은 아예 무간에 뛰어들어 타락해버린 옛 동료들을 구제하고 계도하는 데에 전념하기도 합니다.

변경점

- 기관마법: 동일
- 엽귀의 책무: 내용 동일, 명칭 ‘멸악의 책무’로 변경
- 미움 받는 자: 동일
- 서적경 사냥: 내용 동일, 명칭 ‘하계 평정’으로 변경
- 사냥의 공훈: 동일
- 조건: 동일

- 등래각 燈來閣

신조: 미지의 것을 발견한다.

개요

이 세상에는 밝혀지지 않은 미지(未知)의 미답지(未踏地)가 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세상의 가장자리에 존재하는 허(虛)와 무(無)를 비롯하여 아직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심을 불태우는 이들로 이루어진 것이 등래각입니다.

등래각은 본디 정식으로 인준된 소속이 아닌 일부 천신들의 모임, 말하자면 동호회와도 같은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붕과 이후 무금량 바깥의 세상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고, 새로운 법계(무간)이 생겨나고, 지금껏 없었던 현상들이 관측되자 천존궁에서는 등래각을 정식으로 인정하고 미지에 대한 조사를 명했습니다.

그러나 삶의 빛은 세상을 밝히는 동시에 고요한 마음 속에 바람을 불러 일으키는 것. 미지에 파고들다가 스스로의 탐구심에 미혹되어 경계 너머로 건너가버리는 등래각의 천신들이 적지 않습니다. (5.파계(15p)에서 후술)

변경점

- 기관 마법: 동일
 - 희박한 존재: 동일
 - 마법 연구자: 내용 동일, 명칭 ‘명장(明匠)’으로 변경.
 - 예비 마도서: 내용 동일, 명칭 ‘유비무환’으로 변경
 - 조건: 동일
-
- 팽효전 膨曉殿

신조: 갈등을 중재한다.

개요

팽효전은 그 신조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신과 신 사이, 신과 사람 사이, 무금량과 대법전 사이 등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분쟁을 중재하고 완화시키는 일을 주무(主務)로 삼습니다.

인계를 벗어나 등선한 신선들의 이력은 가지각색으로 다양합니다. 생전에 원수지간이었던 이들도 있고,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를 지녔던 이들도 있고, 사람이나 지위, 명예를 두고 경쟁했던 맞수 지간이었던 이들도 있습니다. 팽효전에서는 이들 사이의 갈등과 알력 싸움을 조정하고 정토의 평화를 유지하고자 갖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대법전과의 연락과 교신 역시 팽효전에서 담당하는 업무 중 하나입니다. 10년에 한 번씩 있는 대법전의 방문 때 마다 팽효전은 어김없이 분주해지곤 합니다.

인계와 선계 사이의 균형과 소통을 담당하는 것 역시 팽효전입니다. 팽효전의 천신들은 각지를 떠돌아다니며 수상한 재액이나 기묘한 이변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 살피기를 게을리 하지 않습니다.

변경점

- 기관 마법: 동일
- 조정 전문가: 동일
- 금지: 동일
- 아는 사이: 동일
- 조건: 동일

5. 파계(破戒)

파계란 무금량을 벗어나 건너편의 세상, 즉 대법전이 존재하는 쪽의 세계로 건너가는 것을 일컫습니다. 파계는 무금량에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으나, 때로 일탈한 몇몇 천신들이 10년에 한번씩 세상의 ‘틈’이 열릴 때 마다 몰래 경계를 넘어가고는 합니다. 이렇게 경계를 넘어간 이들을 무금량에서는 파계자라고 부르며, 선적에서 멸적 처리를 합니다.

이렇게 경계를 넘어간 PC를 무금량상정도 서플리먼트를 이용하지 않은 일반적인 세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계자 PC는 ‘이단자’ 경력을 보유하게 되며, 기관은 일반적인 규칙을 지키는 선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과 서플리먼트를 사용하여 만든 PC를 세션에 데려가기 전에 탁 내 합의를 반드시 거쳐주세요.

6. 전용 마법

이 장에서는 무금량삼정토의 PC가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창작 마법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아래의 마법은 모두 범용 마법으로 간주합니다.

一刻如三秋 일각여삼추			효과	마법전에서 자기 차례에 사용할 수 있다. 지정특기 판정에 성공하면 다음 2라운드 동안 선공, 후공 모두 소환 스텝을 건너뛴다.
타입	지정특기	목표		
소환	추억	없음	주구	그대와 계절을 거니니 일각이 여삼추라.
코스트				
꿈3			개요	환술로서 시간 개념을 어지럽힌다.

巧靈 교령			효과	
타입	지정특기	목표		
주문	이야기	캐릭터 1명	주구	자기 차례에 사용할 수 있다. 지정특기 판정에 성공하면 상대가 습득한 마법 중 하나를 골라 해당 마법의 지정특기를 ‘본래 지정된 특기가 속한 영역 내의 랜덤 특기’로 변경한다.
코스트				오너라, 천추원혼千秋怨魂. 백주세상을 노닐다 가거라.
노래2			개요	짓궂은 영靈을 불러 상대를 혼란에 빠트린다.

神弓 신궁			효과	
타입	지정특기	목표		
타입	지정특기	목표		마법전의 자기 차례에 사용할 수 있다. 지정특기 판정에 성공하면 상대의 주권 내에 있는 모든 개체(원형, 입회인 포함)에게 1점의 대미지를 입힌다. 저항 판정은 개별적으로 한다. 코스트는 대미지를 입힐 목표의 수 만큼 소비한다.
주문	습득	본문참조	주구	일사(一射), 백중이오.
코스트				
별X			개요	한 발을 쏘아 여럿을 명중시킨다.

參日舞劍 삼일무검			효과	자기 차례에 자신이 마검을 사역하고 있다면 사용할 수 있다. 지정특기 판정에 성공하면 이번 라운드 동안 자신이 사역하고 있는 마검에 부스트1을 부여할 수 있다. 하나의 마검에 부스트를 부여할 때 마다 자신의 마력을 누적 감소한다. (1체에 부여할 경우 1점을, 2체에 부여할 경우 1+2점을, 3체에 부여할 경우 1+2+3점을 감소하는 식)
타입	지정특기	목표		주구
주문	흐름	자신의 마검 N체	개요	
코스트				
힘2				

六花 육화			효과	자기 차례에 사용할 수 있다. 자신이 한 번에 5 대미지 이상을 입었을 경우, 지정특기 판정에 성공하면 다음 라운드에 한해 자신에게 추가 대미지 2를 부여한다.
타입	지정특기	목표		
주문	피	자신	주구	찬란히 피어라, 여섯번째 꽃. 피안에 이르러 빛나라.
코스트				
짐승2			개요	피를 마시고 자라는 꽃의 독으로 스스로를 버린다.

陀羅尼 다라니			효과	자신이 3점 이상의 대미지를 입었을 경우, 1점의 마력을 자동으로 회복한다.
타입	지정특기	목표		
장비	없음	없음	주구	삼보께 귀의하나니 살피 이루게 하소서.
코스트				
어둠2			개요	좌선하고 독경하여 악법을 막아낸다.

終